

[포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49재,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 승인 2024.08.11 15:45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8월 11일 오전 11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당한 23명 노동자의 49재가 치러졌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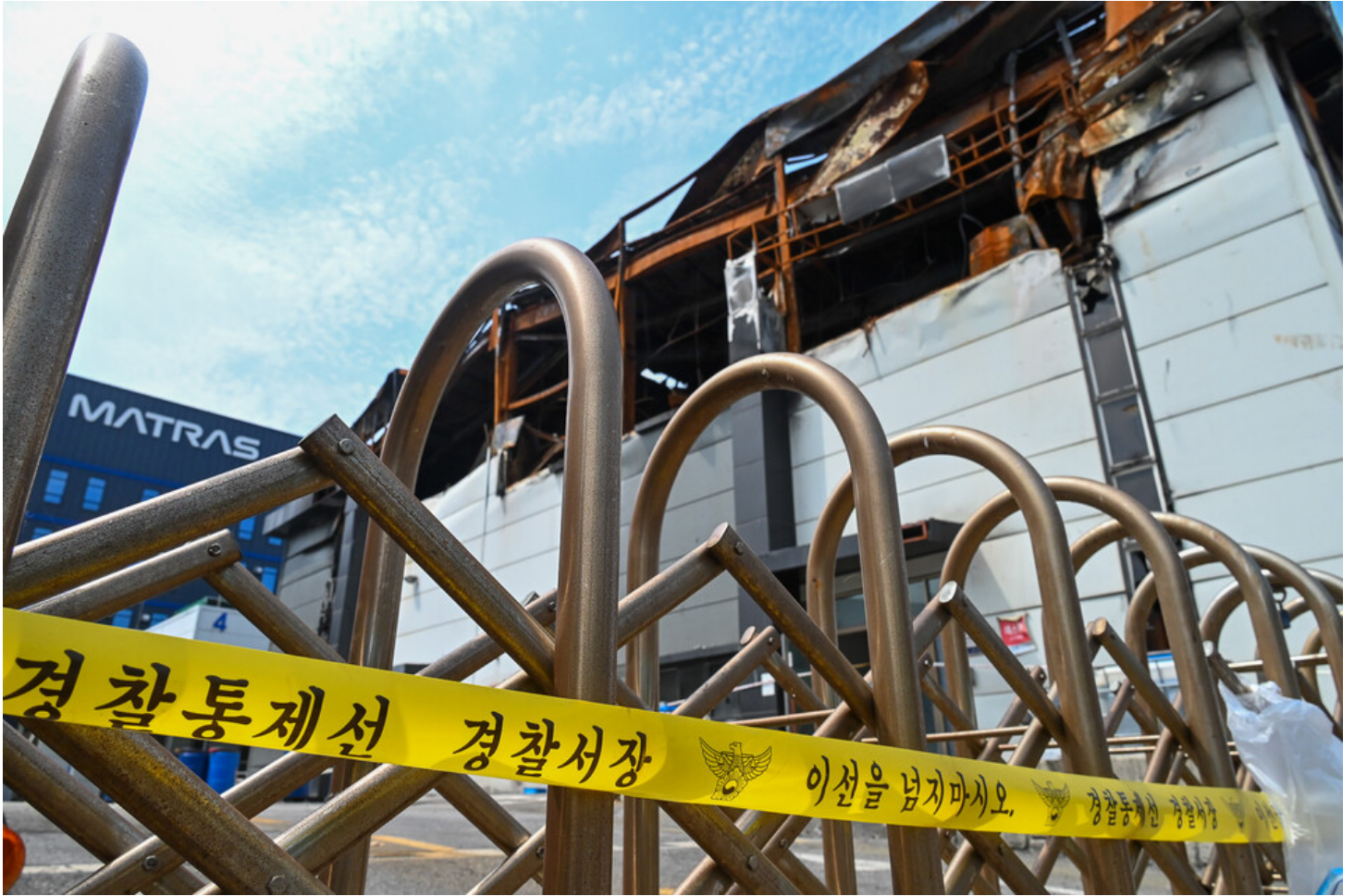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nanda6636@hanmail.net